

9-11 이후 아프간 여성의 프레임링과 호세이니의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정혜옥
(부경대학교)

I

프레임링(framing)이란 지각된 현실의 어떤 양상을 선택하고 강조하거나, 축소하고 배제함으로써 특정한 해석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말한다(Entman 51-58). 이것은 주로 언론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정의되는 프레임링의 의미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프레임은 (어떤 목적에) 짜맞추고, 조작하며,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프레임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실을 구성하고 편집한다는 함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건물 화재는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 다르게 포착된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진으로 그리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면서, 프레임의 결여를 배우고, 각 프레임 간의 차이와 틈새는 보이지 않도록 편집된다. 이 과정이 언론에서 하는 프레임링 작업이며,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사건을 더 잘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53-A00105)

알 수 있도록 어떤 장면은 부각하고 어떤 장면은 삭제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프레이밍은 프레이밍되기 전의 어떤 사건, 혹은 어떤 현실, 즉 프레임 속으로 포착하지 못한 바깥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프레이밍을 조금 넓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간주관적 프레이밍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구성할 수 없고, 하나의 일관된 실체로 지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프레이밍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프레이밍 이전의 현실은 프레이밍 이후에만 인식 가능할 것이다. 즉 무정형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인식의 패턴화, 즉 프레이밍이 사후적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재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성된 프레임은 단수가 아니다. 프레임 안이나 밖에 다시 프레임이 있을 수 있고, 복수의 프레임들을 다시 프레이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프레이밍으로 하나의 상황을 에워싸고 안과 밖의 경계를 긋는다 해도 그것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음매가 잘 맞지 않은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메워서 닫힌 프레임을 구성하고자 하지만, 그 작업은 불가능하다.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논의를 빌자면, 이 프레임 속에 있지 않은 사물, 즉 “어쩌면 더는 사물이 아닌 것으로, 이름 지을 수 없고, 표시될 수 없는, 그래서 대리보충이나 흔적에 의해서만 표시될 수 있는 것”¹⁾이 프레이밍이 구성한 세계의 본질이다. 이 본질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승인할 수도 인정할 수 없는 환대할 수 없는 이물질로서 프레임이 포섭하지 못한 것이거나 바깥으로 내몬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은 프레이밍이 만들어내는 바깥이 없다면 프레이밍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종류의 프레이밍과 관계 짓지 않고서는 생명과 죽음과 같은 기본적인 것도 정의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낙태 논쟁에서 태어는 생명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 혹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인간을 인간답다고 여기는 어떤 잣대, 이러한 모든 것은 프레이밍을 떠나서는 사유될 수 없다. 프레이밍은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과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1) 이것이 바로 데리다가 말하는 파르레곤(Parergon)이다. 이에 관해서는 데리다의 『그림 속의 진리』 *Truth in Painting* 중 「파르레곤」 "Parergon" 98-100쪽 참조.

할 그 어떤 것을 규정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인간의 속성은 인간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제되고 삭제된다. 바로 이 배제된 바깥이 없다면 프레임링의 안도 없다. 이때 바깥은 안을 규정하기 위한 구성적 외부다. 즉 프레임링이 포섭하지 못하는 바깥은 주체에게 치명적이지만, 그것이 없이는 틀 지울 수 있는 안도 없다는 것이다.²⁾

그렇다면, 프레임링에 의해서 생겨난 바깥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프레임링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레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복수의 이미지들을 마치 연결된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움직이는 영상이다. 영상은 차이 나는 프레임들의 반복을 통해 작동한다. 완성된 영상은 완결된 플롯과 이야기를 제공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의 영상에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차이와 간극에 주목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의 프레임 자체의 결여나 과잉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프레임 자체가 정지된 이미지로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표상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어떤 사물, 혹은 생명의 이미지를 정지된 형태로 포착한 것이라면 프레임 그 자체에도 포착의 의도와 어긋나는 어떤 결여나 과잉이 있기 마련이다.

셋째, 재현과 같은 다른 개념들과는 달리 프레임링은 그 자체로 구성된 것이며, 또다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은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프레임임을 선언하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프레임은 구성된 허구적 실체라는 점을 숨길 수 없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만든 행위 주체의 의도를 어느 정도 전제하기는 하지만, 그 의도와 무관하게 혹은 그 의도와 적대적인 방식으로 유통될 수도 있고, 그 유통과 순환의 과정에서 분할될 수 있고 재구성될 수 있는 내속적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

2) 이러한 프레임링의 개념은 주디스 버틀러의 『전쟁의 프레임들』 *Frames of War*의 논의에 일정 부분을 빚지고 있다. 그러나 버틀러는 프레임 자체의 결여나 과잉보다는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 즉 수행성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주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로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하나의 이미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편집했다고 해도 사진 이미지 그 자체에 그러한 프레이밍을 깨뜨릴 수 있는 결여나 과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9-11 이후 우리의 인식을 만들고 틀 짓는 프레이밍과 그것의 취약성을 살피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호세이니 Khaled Hosseini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소재로 하는 『천 개의 찬란한 태양』 *A Thousand Splendid Suns*을 통해 이를 다시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지난 세기가 지배/억압, 1세계/3세계라는 이분법 위에서, 혹은 이 이분법의 해체라는 프레이밍으로 작동되었다면, 21세기는 이분법이 이분법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그것은 보편과 예외, 혹은 세계화와 그 잔여로 대체되어온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프레이밍의 변화를 낳은 대표적 사건이 9-11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9-11은 과거의 좌/우의 이념 대립을 상징적으로 종식하는 지점이며,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세계를 1세계와 3세계, 혹은 우리 식의 서양/동양으로 나누는 세계구성의 이분법적 프레임의 붕괴를 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9-11이 과연 이전의 이분법적 도식을 무너뜨렸는가고 질문할 수 있다. 언론은 9-11 이후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를 적과 친구, 문명과 야만을 확실히 구분했고, 어떤 면에서 나/우리와 타자/적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구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가 낳는 결과는 이항대립이 대립 쌍으로 기능하기 위한 균형추를 무너뜨린다.

실제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9-11 직후에 “모든 지역의 모든 국가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와 함께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미국은 오늘 이후로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어떤 국가도 적대적 정권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라는 연설을 했다(2001년 9월 20일 연설). 우리/테러리스트의 확실하게 구분하는 이러한 수사는 미국

내에서는 대부분의 좌파와 그리고 포스트나 멀티 등의 접두어로 시작하는 용어를 구사하는 자들에게 태도를 확실히 밝히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두 입장 모두를 거부하고 접두어를 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반전주의자는 9-11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지 않는 매국노가 되었고, 성적 인종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정치적으로 잼자는게 대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도 사회적 질서와 표준을 파괴하여 세상을 교란하는 사람들로 매도되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 혹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도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했다는 뉴스는 미군이 이슬람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함부로 총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입을 막았다. 좌파가 9-11에 대해 보인 반응들의 테러라고 틀 면책하고 것으로, 이유로 폐기되었고, 반전시위는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위 말하는 반지성주의가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유포되었다. 따라서 자유세계와 테러리스트의 세계, 전쟁과 평화, 문명과 야만이라는 수사에서 선택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오로지 자유세계만을, 미국 지배하의 평화만을, 문명만을 선택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가 지적하듯이 9-11 직후에 구성된 프레임링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미국이 피해자라는 일인칭 피해자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피해자로서만 부각되었으며, 보수의 미덕으로 간주하였던 관용, 즉 톨레랑스도,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의 폭력은 정당한 전쟁이 되었고, “나”에 속하지 않는 다른 타자의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폭력이 되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폭력을 겪어왔음에도 갑작스러운 폭력, 논의의 여지가 없는 폭력의 희생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잡았다.³⁾

그러나 일인칭 피해자라는 주관적 서사는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애도의 물결에 힘입어 테러의 숨은 용의자 빈 라덴을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명분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

3) 라커Walter Laqueur의 주장처럼 9-11 이후 테러리즘의 문제는 “테러리즘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리즘을 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vii).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즐고, 『9-11 테러와 외상적 사건』211-13 쪽 참고.

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인칭 서사에, 소위 말하는 인권, 자유, 정의, 폭력 비판 등의 보편을 가장한 서사가 덧입혀진 프레임이 구성되었다.

우선, 인권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폭력은 전근대적 야만으로 강등되지만, 미국이 받은 고통과는 반드시 연관이 없을지도 모르는 과녁을 향해 행사되는 제한 없는 공격이나 폭력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주류언론은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치명적 상해를 입거나 죽은 아이들이나 민간인의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런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엔 주로 단순 오폭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자유는 철저한 미국 중심 혹은 서구 중심의 자유로 프레임링 되었다. 강제나 강요coercion로부터 보호받을 자유는 자유의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났다. 자유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슬람권의 종교적 근본주의는 폐기되어야 하고, 미국식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근대를 성취하지 못한 야만으로, 문화발전의 미성숙한 단계로 격하된다. 이것은 무슬림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문화적 공간에 따라 다른 시대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시간을 규정하는 잣대는 무엇일까? 시간은 기원과 끝을 상상하는 목적론으로 인종주의, 민족주의 등의 중층적인 프레임 속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시간 그 자체도 근대적인 발전 개념에 묶여 있는 것으로 속이 텅 빈 서구 중심의 동질적인 시간으로 프레임링된 것이며, 바로 이러한 프레임링이 시간의 바깥을 만든다. 다시 말해 이런저런 잣대에 의해 야만으로 강등되는 문화는 우리 시간에 속해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링에서 1세계와 구분되는 3세계, 더 나아가 동양 혹은 아시아라는 지역의 경계도 예외 없이 무너진다.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말하는 서양/동양이라는 지역 구분에 의한 지배와 저항의 양상은 9-11 이후의 시대에는 점점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사실 이전의 지역 구분에 따라서 보자면 아시아는 2001년 이후 대테러 전쟁의 주요 무대이다.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포함하는 중동(서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남아시아, 구소련연방을 다수 포함하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2002년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악의 축으로 주목했던 북한(동북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는 2001년을 기점으로 불량국가의 온상이 된다. 또한, 미국을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도 단순

히 이 무대의 관람객은 아니다.⁴⁾

물론 아무도 아시아의 기원을 말할 수는 없다. 어원에서부터 아시아는 유럽과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용어다. 아시아는 동쪽(asu)라는 앗시리아어로, 유럽과 인접한 “유럽이 아닌 지역”을 포괄하던 이름이다.⁵⁾ 서구에서 아시아가 등장하는 최초의 문헌은 호머의 『일리아드』이며 여기서 아시아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터키의 고원지대, 즉 아나톨리아를 지칭했다. 중세에 등장하는 아시아는 실제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와 상상, 혹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 사이의 경계를 지칭하는 어휘로서 로맨스나 이국적인 체험의 무대로서 상상되었다. 사실 근동(중동, 아랍)⁶⁾이 가장 먼저 아시아로 간주하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아랍인이 자신을 아시아인으로 칭한 적은 없었다. 페르시아 역시도 자신을 스스로 아시아로 규정한 적이 없으며 인도,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우리가 지리적 용어로 사용하는 아시아란 개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6세기 네덜란드 측지학자 메르카도르 Ferhardus Mercator의 세계지도에 의해서이다. 그 이후 아랍과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결코 동질화될 수 없는 다른 이질적 지역들을 통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출현한 배경 역시 근대 이후 아시아를 서구중심의 시각으로 재구성해온 관례를 비판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시아를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마치 어떠한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인 것처럼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놓은 ‘아메리카’와 달리 아시아는 쉽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서구의 곤혹이 담겨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이드 이후 포스트식민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아시아를

4) 특히 한국정부는 2009년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함으로써 아프간과 관련한 첨예한 분쟁의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5) 아시아의 개념 형성과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는 스피박의 『다른 아시아들』 *Other Asias*, 앤더슨 Benedict Anderson의 『비교의 유령』 *The Spectre*, 코시 Ninan Koshy, 『테러에 대한 전쟁』 *The War on Terror* 등을 포괄적으로 참조하였다.

6) 중동 Middle East Asia은 동양을 구분할 때 유럽 가까운 쪽을 근동, 조금 먼 쪽을 중동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2차대전 당시 연합군이 군대편성을 위한 작전지역의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동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유래한다.

서구의 타자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하나의 실재하는 지역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비판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이러한 시도는 위기에 봉착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 지배와 비지배를 나누는 갖대의 문제는 9-11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다. 이주와 이산이 범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1세계와 3세계라는 지역 내부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차이와 차별, 분리와 분할, 그리고 포함과 배제의 전략을 간과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래서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제’ 혹은 정관사 ‘the’를 떼어보기도 하고, 국가나 민족 개념으로 포섭될 수 없는 ‘4세계’라는 용어를 고안해보기도 하고, 명칭을 ‘북’/‘남’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포스트식민주의자들은 구체적 지역성을 보유하기를 원했다. 비록 지역의 경계가 유동적이고 하나의 표상으로 고정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문화 간의 경계를 넘어설 것을 조심스럽게 주장해온 이론 진영에서와는 달리 9-11 이후 미국 정치의 현장에서 지역 간의 경계 파괴는 문자 그대로 파괴적이었다. 10년 전의 걸프전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틀을 고수하고 있었다면, 9-11 이후에 바로 시작된 아프간 침공은 아프간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소속된 국가라는 개념도, 심지어 아프간이 하나의 지역이라는 사실조차 때때로 간과되었다. 아프간 침공은 국가에 대한 침공이 아니라, 아프간 내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었다. 조지 부시는 이를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이라는 모순어법으로 표현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에서 유래하는 전쟁이 국가 개념에 기초하지 않는 테러리즘과 붙여 놓은 것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와 언론이 주도하는 프레임ING 속에서 아시아 역시 우리 아시아와 그 예외라는 구도 속에서 새로이 짜인다. 즉 우리 아시아는 세계화의 배에 기꺼이 탑승하는 자들이며, 아시아 지역에 산재하는 불온한 자들은 그 예외로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중동이나 아프간, 팔레스타인 등 역시 동양, 혹은 아시아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게 된다.⁷⁾ 또한

7) 물론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에서만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우리가 유럽이라고 말할 때 동유럽도 유럽이라는 사실은 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스피박의 『다른 아시아들』, 서론, 및 7장 참조.

무슬림 역시 특정한 지역에서 실제로 숨 쉬고 살아가는 고통을 느끼고 슬퍼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존재라는 것 역시 잊는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마르크스적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백인과 비 백인, 혹은 남성과 여성 등 계급과 인종, 성에 입각한 용어들은 인간 일반과 예외적 인간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체된다. 즉 구체적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하지 않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는 예외적 표상은 지역의 경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문명과 종교의 구분, 혹은 인간적인 것을 뿌리부터 재정의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질서 내부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인 동시에, 사라져야 할 근본악, 혹은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의미에서 “호모 사케르”Homo Sacre의 대표적 표상이 되었다. 즉 호모 사케르가 정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삶^{zoē}를 정치 속으로 포섭하고 더욱 고상한 종류의 삶^{bios}만을 삶으로 인정하는 포합적 배제inclusive exclusion 통해 생산되었듯이,⁸⁾ 9-11 이후의 프레임은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를 새로이 보편성의 정원 외 요소라는 새로운 틀 속에 가둠으로써 다른 형태의 바깥을 창출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9-11 이후 이러한 프레임의 구성과 유통에 가장 강력한 표상으로 등장한 것은 아프간 여성들일 것이다. 특히 얼굴까지 포함하여 온몸을 검은 천으로 가린 부르카를 입은 아프간의 여성의 이미지는 9-11 이후 많은 신문과 잡지 그리고 방송을 빠른 속도로 장악했고, 무슬림이라는 새로이 구성된 타자의 대표적 표상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에 의한 부르카의 천편일률적 프레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진보적 페미니스트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스피박Gayatri Spivak이 일찍이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는 과부의 (반강제적인) 자살 관습^{sati}에 대해 논할 때, “백인 남자가 인도 여성을 구원한다”(“Subaltern Speak?” 296)는 수사로 영국이 제국주의의 확산과 강화를 위해 어떻게 페미니즘을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독립 후 인도 여성의 지위를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듯이, 진보적 페미니스트들 역시 이슬람 여성의 인권에 대해 선부른 개입이 어떻게 미국의 아프간 침략을 페미니즘

8) Giorgio Agamben, *Homo Sacer*, 1-12쪽 참조.

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지를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Laura Bush는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은 억압받는 여성에게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는 라디오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이 이러한 프레임 속에 휘말리게 될 때 무슬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설부른 개입은 패권적인 전쟁과 무차별적인 폭력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말했듯 9-11 이후 위기에 처한 것이 페미니즘 하나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과 언론은 아프간 여성의 억압적 상황을 이용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고자 했지 실제 그들의 자유와 인권, 정의의 구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프간에서 여성 억압적 정책을 펼치는 탈레반이 집권한 것은 2001년보다 훨씬 전인 1996년이다. 이 기간에 아프간에서 구소련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탈레반을 지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2001년 이전 페미니즘 단체인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연합이 탈레반 정권의 여성인권 탄압에 대해 세계가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9-11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가가 전쟁을 시작하며, 여성인권 수호라는 명분을 내걸었을 때, 서구의 침략 앞에서 아프간여성혁명연합은 “부르카는 하나의 공동체, 종교, 가족의 소속감, 그리고 겸양과 자긍심의 실천, 수치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⁹⁾, 전통의 수호자로 태도를 바꾼 것도 이러한 프레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되자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만이 아니라 이슬람권에 속하는 여성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고, 폭력의 희생자는 오히려 더 많아졌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는 여자가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폭력의 수단을 이용하여 폭력의 순환을 가속하는 것이 페미니즘이 취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구 페미니즘이 다른 세계의 억압받는 여성들에 개입하려면 먼저 전쟁이 만든 프레임을 부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Frames of War*, 184). 그렇다면, 대안은 아프간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아니면, 조심스럽게 스피박이 주장하듯이 아프간 내부에서 그들의

9)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아부-루고드 Lila Abu-Lughod의 “무슬림여성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Do Muslim Women Really Need Saving?* 783-90쪽 참조.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여성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강요된 동의의 도출이 아닌 서구의 배움을 벗어던지고서 그들에게 기초적 교육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Other Asias*, 44-57)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여성의 구원이 전쟁의 명분 중의 하나가 되면서 아프간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은 더 악화되었다.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에 대한 연구나 보도조차도 자제하라고 요청했고, 반면 서구의 언론에서는 부르카가 벗겨진, 어쩌면 부르카를 강제로 빼앗긴 아프간 소녀의 얼굴을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여성의 지위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III

이러한 프레이밍을 지속시키는 데는 미 정부와 언론만이 이바지한 것은 아니다. 영화제작사나 출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탈레반이 등장한 1996년 이후로 여성들은 남자 가족이나 친척의 동행 없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는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도, 작가도 없었다. 설사 그런 작품이나 저술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받아줄 출판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2001년 9월이 지나자, ‘이슬람 국가를 탈출하거나 이슬람 근본주의의 폭정에서 벗어나 이제 드디어 인간답게 살게 되었다’라는 수사로 가득 찬 많은 소설과 논픽션이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올랐다. 몇몇 주목받지 못한 예외가 있기는 하겠지만 베스트셀러가 된 거의 모든 작품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한 이러한 미국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작품들이었다.

그중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소련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Kite Runner*)와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이다. 전자가 아프간에서 탈출한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후자는 아프간에서 고난의 역사를 살아내어야 했던 여자들, 마리아Mariam과 라일라Laila의 이야기다. 그의 소설은 아프간의 삶을 타자성에 매혹된 서구 독자 혹은 관객의 응시에 노출함으로써 야만적인 아프간 문화를 서구의 박물관

관에 성공적으로 전시했으며, 또한 부르카가 억압적 옷이라는 이미지를 재생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문학작품인 동시에 아프간 역사서로 고등학생의 필독서가 되었고, 학교 커리큘럼에 추가되었다.

물론 미국독자가 외국에서 온 이민자 작가가 쓴 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호세이니의 소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최소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 소재가 9-11 이후의 미국 상황에 걸맞았던 이유로만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9-11 이후 출판된 많은 소설이 알파하고 속은 텅 빈, 대중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작품들이 무척 많았기는 했지만, 그중에는 문학성이 있다고 평가된 작품도 있었고, 드릴로Don DeLillo나 업다이크John Updike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작가도 있었다. 부르카를 직접적인 소재로 삼은 소설도 있었고¹⁰⁾,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장면을 담은 소설¹¹⁾도 나왔고, 언론에서 9-11 테러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무하마드 아타Muhammed Atta가 등장하는 소설도 있었다.¹²⁾ 그러나 학계나 비평가의 호불호를 넘어서 그 중 누구도 호세이니만큼 열광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호세이니는 1976년, 그가 11살이었을 때,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미국으로 망명해온 이민자이다. 따라서 그는 탈레반이 집권하던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지 않았다("On Exile"). 그가 소설을 쓰려고 끌어온 정보는 거의 2차 자료에 따르거나, 아니면 아프간 출신의 다른 이민자에게 들은 이야기이다("Using Real People"). 2005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탈레반의 정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당시 삶의 고뇌와 투쟁들, 모든 험겨움은 고향땅의 모습이다"고 밝혔다(Khadra, "Reader").

그러나 그가 재현하는 아프간과 아프간 여성의 모습은 언론을 장식하는

10) 실화나 회고록이 아닌 주목할만한 소설로서 2002년에 출간된 허쉬M. E. Hirsh의 『카불』*Kabul*이 있다.

11) 주목할만한 작품으로는 2006년에 발표된 칼푸스Ken Kalfus의 『미국의 기묘한 혼란』*A Disorder Peculiar to the Country*이 있다.

12) 드릴로의 『떨어지는 남자』*Falling Man*(2007)와 업다이크의 『테러리스트』*Terrorist*(2006)는 모두 무하마드 아타를 등장시킨다.

무슬림 여성의 프레이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탈레반은 문화유산인 불상을 폭파했고, 나라 전체에 비밀 캠프를 만들어 자살폭탄병과 전사가 되는 훈련을 시키는 집단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탈레반 집권에 미국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아프간 여성들이 제국주의 확산을 경계하고 9-11 이후에 부르카를 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표식으로서 다시 착용하기로 한 여자들에 대한 묘사도 없다. 한마디로 주류 미국인들을 불편하게 할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연을 쫓는 아이』처럼 미국으로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명백한 안도감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리 아프간 여성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실제로도 그랬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프간과 아프간 여성에 대한 이런 식의 묘사에도, 그의 소설 속에는 그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주류 언론이 만들어놓은 큰 프레이밍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르카의 이미지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이 소설에서 부르카는 억압적 옷인 동시에 야만적인 아프간의 대표적 표상으로 자리한다. 탈레반은 집권하자마자 아프간의 모든 여성에게 부르카를 입도록 강요하고, 아프간 여성들에 대해 억압 정책을 시행한다.

여자들은 항상 집에 있어야 한다. 여자들은 거리를 배회해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갈 때는 남자친척이 동행해야 한다. 거리에서 혼자 다니다가 걸리면 매질을 하여 집으로 보낼 것이다. [...] 여자들은 바깥에서는 부르카를 입어야 한다. 화장은 금지한다. [...] 남자와 눈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공공 장소에서 웃어서는 안 된다. [...] 여학교는 즉시 폐쇄될 것이며,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여자들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간통을 하다 적발되면 둘로 처죽일 것이다.¹³⁾

이런 정책에 따라 거의 모든 병원에는 여성 의사가 없었고, 힘들게 찾은

13) 호세이니의 『천 개의 찬란한 태양』 248-249. 이하 괄호 속에 쪽수만 표기한다. 이 소설은 왕은철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고, 번역이 좋다. 그러나 어조나 강조점이 필자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용페이지는 영문판을 따랐다.

여성전용병원에서 라일라는 마취제도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라일라는 탈레반이 들어오기 전 학교 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이지만, 전쟁으로 집안이 엉망이 되고 사랑하던 연인마저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라시드Rasheed의 두 번째 아내가 된 여성이다.

2000년 여름 가뭄이 3년째 계속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라시드는 자신의 가게의 문을 닫는다. 그러나 라일라가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취업은 물론이고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딸을 고아원에 맡긴다. 그러나 딸을 만나려고 고아원에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다. 첫 아이가 라시드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만을 극도로 편애하는 라시드가 라일라가 딸을 만나는 데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자 길을 나선 그녀는 가혹한 매질을 피할 수가 없었다.

또한, 첫번째 아내인 마리암은 아프간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 출신의 어머니와 유복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 쪽 친척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강제로 라시드와 결혼했다. 10대의 너무 이른 결혼 때문인지, 몸이 약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임신과 유산이 반복되었고, 결국 그녀는 불임이 된다. 마리암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라시드는 그녀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프간 여성에 대한 언론 보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묘사에도, 그의 소설에는 미국적인 프레임에 들어맞지 않는 부르카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여성은 남편 이외에는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63)고 생각하는 라시드 때문에 마리암은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에도 부르카를 입는다. 남편이 만든 세계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부르카는 마리암이 가장 비천한 계급 출신이라는 과거를 숨기는 도구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경멸적 시선에 대항해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멋진 의복이었다. 부르카를 쓰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일라 역시 부르카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로에 난 구멍에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부르카의 자락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무식한 라시드와 같은

남자의 두 번째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재의 참혹한 상황을 타자의 눈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208).

또한, 라일라와 마리암이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피해서 파키스탄으로 도피하고자 했을 때에도 부르카는 남성들의 억압적 세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물론 이 시도는 실패하고, 더 힘겨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지만, 실패 후에 두 여자 간의 더욱 끈끈한 자매애를 확인하고 그들의 결속을 가속하는 역할을 한다.

라일라는 죽은 줄 알았던 옛 연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현재의 라시드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라일라와 라시드 사이에 긴장이 감돈다. 이 상황을 라시드는 폭력으로 해결하려 들고, 라시드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는 순간 마리암은 창고에서 가져온 삽으로 라시드를 살해한다. 그 후 그녀는 자수했고, 이전의 종속적이고 겁에 질린 그녀가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부르카를 입고 수백의 아프간 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형대로 나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IV

미국은 야만적인 이슬람 타자를 문명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미국이 정당화하는 프레임의 바깥에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고문이나 무고한 어린아이나 민간인에 대한 미국의 야만적 폭격이 있다. 미국의 고문은 다수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오폭은 단지 다수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약간의 희생일 뿐이다. 여기서 타자의 ‘문명화 사명’이라는 프레임과 다수의 행복을 지향하는 프레임은 사실상 유사한 틀이다.

사실 하나의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것이 언제나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적인 프레임에서 미국이 비난하는 극단적인 이슬람의 프레임으로 프레임을 전환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폭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때로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대의를 위해서는 자살폭탄테러와 같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의 전환은 때로 필요하지만, 프레임의 전환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프레임의 전환이 아니라 프레임 사이의 간극이며, 프레임 자체가 가지는 내속적 취약성이다. 이 취약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살과의 전쟁(다이어트)을 수행하는 서구의 중상층 여성과 굶주림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다른 세계의 여성들은 “전쟁”이라는 수사 속에서 같은 갈래로 묶어버릴 수도 있다. 9-11 이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르카의 프레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부르카가 억압의 표상으로 전시되는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부르카를 벗기기를 강요하는 문화를 상찬하는 것이 진정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이룩하는 일은 아니다. 또한 프레임의 간극, 프레임 자체의 간극,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극에 주목하는 것은 프레임 되기 전의 어떤 완전한 유토피아적 현실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들머리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프레임이만 들어내는 구성적 외부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타자가 구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주주의의 프레임 그 자체에 들어 있는 ‘나’와 ‘우리’라는 일인칭 화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결여, 혹은 일인칭을 넘어서는 어떤 과잉에도 주목해야 한다.

호세이니의 『천 개의 찬란한 태양』처럼 탈레반의 가차없는 폭력에 노출된 아프간 여성을 폭력적인 전쟁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그러한 폭력을 종식할 수 있고 억압받는 여성에게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더 많은 더 큰 규모의 살육과 폭력의 정당성을 설득할 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프레임을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프레임에서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호세이니의 소설을 읽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라캉이 말하는 흉내내기(mimicry)는 맥락은 다르지만 프레임의 과잉/결여, 프레임 자체의 내속적 취약성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호세이니와 같은 아프간에서 출생한 이민자 작가가 미국의 독자의

구미에 맞는 작품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주목받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가 저향적 글쓰기를 시도한다면 주류 출판사에서 출판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낼 수 없는 작가이며, 자신의 출신지를 문화상품으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문화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소수자이다. 호세이니가 미국화에 동의하고 동화를 선호하는 것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그가 미국의 출판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호세이니의 미국적 프레임으로의 동화는 필연적이다.

사실 흉내내기를 문화연구에 끌어들이는 사람은 바바Homi Bhabha지만, 그가 의존하는 이론적 틀은 라캉의 것이다. 라캉에 의하면 흉내내기는 적응이나 동화의 문제라기보다는 변장, 위장, 위협의 문제이다(Lacan 99). 하나의 예가 군사작전의 위장술로, 군사들이 주변환경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위장하는 것은 주변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을 공격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자 하는 시도의 소산이다. 또 다른 예는 들어 자신의 몸 색깔을 주변 배경색과 비슷하도록 바꾸는 작은 해양생물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우리는 동물의 위장술이 환경에 적응하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라캉은 흉내내기란 결코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에 동화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와 정반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Lacan 99). 주변의 바다가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라고 볼 때, 이 바다생물의 위장술은 전체 그림에 하나의 얼룩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조화로운 총체로서 생각하는 것에 총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다른 이물질들을 삽입하는 것이다.

호세이니의 소설 역시 아프간과 아프간 이민자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나왔다.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는 저세상으로 떠나버린 마리암에게 남긴 죽은 아버지의 편지는 마리암의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대한 응답이다. 물론 이 부분 역시 가족의 화해라는 미국 대중문화의 전형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프레임은 9-11과 관련된 상황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9-11이란 특정한 프레임의 바깥, 즉 더 큰 프레임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은 부르카의 경우에서처럼 익숙한

것의 반복을 통해서 미국 주류 문단에 하나의 얼룩을 기입한다. 물론 이 얼룩은 주목받기에는 너무 작고 미세해서, 군사작전의 위장술처럼 위장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바다 전체를 다르게 보이게 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빼딱하게, 혹은 비스듬하게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너무 미세해서 종종 간과되기는 하지만, 프레임이 가진 내속적 취약성과 얼룩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을 좌표 속에 기입하는 작은 움직임일 수 있다.

❖ 참고 문헌

- 정혜옥. 「9-11 테러와 외상적 사건」. 『비평과 이론』 13.1 (2008): 211-35.
- Abu-Lughod, Lila "Do Muslim Women Really Need Saving?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Cultural Relativism and its Others." *American Anthropologist* 104.3 (2002): 783-90.
- Anderson, Benedict. *The Spectre of Comparisons: Nationalism,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New York: Verso, 1998.
- Agamben, Giorgio. 1995.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P, 1998.
- Bulter, Judith.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New York: Verso, 2009.
- _____. *Precarious Life: The Power of Mourning and Violence*, New York: Verso, 2004.
- Bush, George. "The President's Speech." Sept. 20, 2001. <<http://yc2.net/speech.htm>>
- Bush, Laura. Radio Address. "September 11, 2001: Attack on America," November 17, 2001. <http://avalon.law.yale.edu/sept11/fl_001.asp>.
- DeLillo, Don. *Falling Man*. New York: Scribner, 2007.
- Derrida, Jacques 1978, "Parergon." *The Truth in Painting*, Trans. Geoff Bennington and Ian McLeod, U of Chicago P, 1987, 37-82.

- Entman, Robert M.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1993): 51-58.
- Hirsh, M. E. *Kabul*, St. Martin's Griffin, 2002.
- Hosseini, Khaled. *A Thousand Splendid Suns*. New York: Riverhead, 2007.
- _____. Interview. "On Exile." <<http://www.goodreads.com/videos/show/1301-khaled-hosseini-on-exile>> video.
- Khadra, Ysmina. Interview by Stuart Jeffries, "Reader, I'm a He." *The Guardian* 22 Jun. 2005.
- Kalfus, Ken. *A Disorder Peculiar to the Country*, Ecco, 2006.
- Koshy, Ninan. *The War on Terror: Reordering the World*, New Delhi: Leftword, 2002,
- Lacan, Jacques. "The Line and the Light," *The Four Fundamental Concept of Psychoanalysis*, London: Hograth, 1977.
- Laqueur, Walter. *A History of Terrorism*. New Brunswick: Transaction, 2002.
- Spivak, C.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and Larry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Chicago: U of Illinois P. 1988. 271-313.
- _____. *Other Asias*. Malden: Blackwell, 2008.
- Updike, John. *Terrorist: A Novel*. New York: Knopf, 2006.

❖ ABSTRACT

Framing Afghanistan Women After 9-11 and Khaled
Hosseini's *A Thousand Splendid Suns*

Hae-ook Jeong

To frame is to select some aspects of a perceived reality and emphasize, diagnose and interpret them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In the daily usages, you can easily find the meaning of “framing” as producing false evidence against an innocent person so that people think he or she is guilty. A frame can be said to editorialize realities in a certain way.

According to Judith Butler, “to call the frame into question is to show that the frame never quite contained the scene it was meant to limn, that something was already outside, which made the very sense of the inside possible recognizable.” But unlike such a concept as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the frame cannot hide its own vulnerability and fictionality perfectly, so never quite determine precisely what it is we see, think, and recognize.

Accordingly I try to show how the images of Afghanistan women have been framed and reframed after 9/11 in mainstream media, and explore the lack or excess of framing through reading Khaled Hosseini's *A Thousand Splendid Suns*, which both reinforces and breaks down the stereotypical views of the veiled Afghan women.

Key Words

9-11, 프레임, 프레이밍, 부르카, 아프가니스탄 여성, 호세이니, 『천개의 찬란한 태양』
9-11, Frame, framing, burka, Afghanistan women, Khaled Hosseini, *A Thousand Splendid Suns*

논문접수일: 2009. 11. 15.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